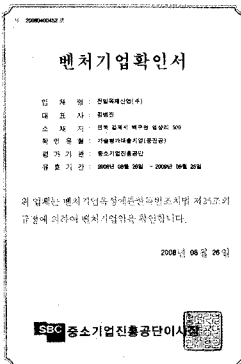




[업계소식]

◆ 목재업계 최초의 벤처기업탄생



전북 김제에 위치한 전일목재산업(주) (대표이사 김병진)는 지방소재 기업의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최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지정받는 쾌거를 이룩했다.

목재기초소재 생산 및 수출용 목재파렛트, 포장BOX등을 생산하는 전일목재산업(주)은 지난78년 창업이래, 1997년 법인 전환 후 꾸준한 성장세에 힘입어 2007년 조경시설자재 생산을 위한 첨단 거조시설 및 가압방부시설을 갖추고 혁신형 중소기업 지정 ISO9001, ISO14001 및 임산물 품질인증기업으로 지정 받았

으며 이번 개발에 성공한 순간조립형목재BOX 개발로 특허 취득과 함께 순수목재업계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지정 받음으로서 목재기업으로서 위치를 더욱더 공고히 하게 되었다.

◆ 산업포장 수상한 서병륜 LogisALL 회장



지난 30년 가까이 물류외길만을 걸어온 LogisALL 그룹 서병륜 회장이 지난 10월 21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주최로 개최된 '2008 세계표준의 날' 기념식에서 영예의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현재 (사)한국물류협회 회장이기도 한 서병륜 회장은 국내에 표준 파렛트와 컨테이너 등 물류기기의 공동사용 시스템인 파렛트 풀 시스템과 컨테이너 풀 시스템을 도입, 확산시켜 우리나라 물류시스템을 합리화하는 한편 국내는 물론 아시아지역의 물류표준화를 이끌어온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 ECR 아시아 퍼시픽 컨퍼런스 2008 전시회



LogisALL은 지난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태국 방콕시 Centra Grand & Bangkok Conv-ention Centre에서 진행되는 'ECR 아시아 퍼시픽 컨퍼런스 2008'에 후원사로 참가하여 전시회를 진행했다. ECR Thailand에서 주관하는 컨퍼런스는 해외 ECR(Efficient Consumer Response) 및 SCM(Supply Chain Management) 추진사례를 발표하고 관련기술 개발 및 사업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매년 진행하며, 이번이 11번째 행사로 LogisALL은 처음으로 참여 했다.

LogisALL은 이번 전시회에서 일본의 JPR(Japan Pallet Rental)과 공동으로 전시부스를 설치하고 회사 소개 및 e-Logistics 관련 사업에 관한 판넬을 전시하며, APP 사업 설명 및 RFID를 활용한 물류정보시스템을 시연했다. 그리고 컨퍼런스 첫째날인 10월 15일에 JPR과 함께 'e-collaboration on Asia Pallet Pool System'을 주제로 발표해 열띤 호응을 얻었다.

3일간의 컨퍼런스 기간 동안 태국과 싱가포르, 중국, 브라질 등 외국 참관객과 바이어들이 자사 부스를 방문하여 사업 문의 및 상담을 진행했으며 공동물류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 LogisALL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해외 물류 관련업체에 회사를 널리 알리고 새로운 해외사업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LogisALL 물류도서관, RFID 관리 시스템 도입

LogisALL은 사내 물류도서관에 RFID 기반 관리 시스템을 도입 완료하여 8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기존에 소장하고 있던 3,500여 권의 전문도서 등 물류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임직원 중심의 효율적 정보제공을 함으로써 서비스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LS산전과 함께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RFID 기반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번에 구축한 시스템은 기존 13.56MHz RFID 시스템이 주류를 이루던 도서관 관리 시스템과 달리, 물류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RFID UHF대역(900MHz)을 활용, RFID 시스템 도입을 통해 자료 검색이 쉬워지고, 대출·반납 등 관리업무가 간편해지는 등 도서관을 이용하는 임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기업 사내도서관의 경우, 현재 KT연구소 자료실, 삼성연수원 자료실에서 일부 RFID 시스템을 도입하여 소장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물류업계에서 자료실 분야에 RFID 시스템을 도입한 사례는 LogisALL이 국내 최초로, 관련업계 등 대외적으로 LogisALL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예상된다.

◆ 골드라인 ' 2008 한국의 아름다운 기업대상 수상 '



글로벌 경영시대에서 세계시장에 통할 수 있는 국제경쟁력 제고와 기업경영에서의 윤리경영, 친환경경영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한국일보와 스포츠한국이 제정한

2008 한국의 아름다운 기업대상' 수상식이 2008년 10월 23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거행 되었다.

한국의 아름다운 기업을 발국하기 위해 산학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지속가능성, 기업윤리 및 사회적 책임, 환경, 창조, 혁신 등 공정한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환경, 사회, 경제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기업을 한국의 아름다운 기업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골드라인은 정도경영부문에서 이흥기 회장이 직접 시상식에 참여하여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이밖에도 노사상생경영부문에는 대한통운 이국동 사장이, 환경친화부분 금호석유화학, 공공부분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사회공헌부분 SH공사, 자원봉사 부문 환경관리공단 등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날은 특히 미주한인방송국에서도 인터뷰를 요청하여 정도경영과 수상소감에 대한 당사 회장의 취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 이견환경, 동경 포장박람회 TOKYO PACK 2008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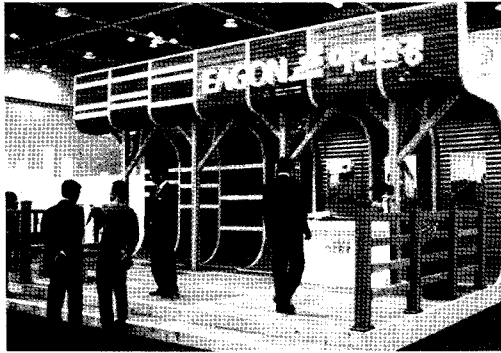
이견환경이 아시아 최대규모의 포장박람회인 TOKYO PACK 2008 (10.07~10.11 동경 빅사이트)에 참가하였다.

TOKYO PACK은 1996년 처음 개최하여 올해로 21회를 맞이한 포장 전시회로서 포장자재, 기계를 중심으로 내외국 500개 이상의 회사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전시회이다.

이번 전시회에서 이견환경은 자사제품인 Green Pallet를 비롯하여 Green Combi, Green Membrane, Clip-Lok 등을 선보였으며 금번 전시회를 통해 일본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계기가 되었다.

현재 Green Pallet는 국내 뿐 아니라 일본 및 대만 등의 국가에 수출되고 있다.

◆ 이견환경, LANDEX 2008 참가



지난 10월 2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일산 KINTEX전시장에서 진행된 “LANDEX2008” 박람회에 이견환경이 참가하여 그린콤보, 천연데크 등 다양한 조경재를 선보였다.

이견환경은 금번 전시회에서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가 후원하는 “YTN친환경 주거문화 대상” 친환경 조경시설 부분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그린콤보는 기존 목재제품의 단점을 개선한 목질복합체 제품으로 데크재, 사이딩, 난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며 이미 08년 조달청 우수제품으로도 선정된 바 있는 친환경 조경자재이다.

◆ (주)구광프라텍 홈페이지 새롭게 단장



플라스틱 파렛트 제조 전문업체인 (주)구광프라텍이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였다.

◆ e-라이브러리, 독일 파센과 제휴

125년 역사 독일 파센사와 전략적 제휴
노하우 전수 및 디자인 교육 등 긴밀한 협조 논의



국내 대표적인 고급 서재가구 제조기업인 e-라이브러리가 독일 서재가구 대표기업인 파센(Paschen)과 제휴를 맺었다.

이로써 파센에서 생산된 서재가구가 국내에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영림목재 이경호 사장 일행과 파센 관계자는 지난 9월 8일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e-라이브러리 매장에서 신문 및 잡지사 기자 간담회를 갖고 양기업간 제휴를 맺게 된 배경과 파센과 파센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을 했다.

e-라이브러리는 유럽풍 서재가구 전문 제조 기업으로서 품질 면에서는 세계에서 자신할 수 있다. 그러나 고정화된 서재를 만들어 유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센과는 다르다. 파센은 고객의 주문을 받아 생산하기 때문에 재고가 없는 기업으로 유명하며 생산 제품의 디자인이 다양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두 기업이 만나 서로 상대방 기업의 장점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엔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두산인프라코어, 브랜드-기술로 북미시장 공략

시카고 IMTS2008 공작기계 전시회 참가

두산인프라코어가 공작기계 분야 글로벌 시장에서 고성능-고급형 장비 메이커로 거듭나기 위한 브랜드-기술 혁신전략을 펼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9월 8일부터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공작기계 전시회인 IMTS 2008(International Manufacturing Technology Show)에 참가해 차세대 기



종 및 미주지역 전략 신기종 터닝센터 17대, 머시닝센터 11대 등 28개 모델을 전시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번 전시회에서 주요 출품 장비들을 4개 테마로 구분하고 테마별 기종별 비교를 쉽게해 전시의 전문성을 높였다. 특히 다기능 복합가공 및 충돌방지 기능을 장착한 복합가공기와 최근 급성장세인 유전산업 시장을 목표로 한 초장축 터닝센터 등을 새롭게 선보여 바이어 및 관람객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특히 두산인프라코어는 이 전시회를 통해 북미시장에서 두산 브랜드에 대한 친밀한 이미지와 인지도를 대폭 신장시켰으며 아울러 풀라인업을 갖춘 최적의 시스템 업체로서 글로벌 공작기계시장을 이끌어가는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했다.

◆ 삼영물류(주) 이상근 대표, '생산성 향상부문' 수상



삼영물류의 이상근 대표가 인천상공회의소(인천상의) 창립 123주년 기념식에서 '제26회 상공대상 생산성 향상부문'을 수상했다.

이상근 대표는 뛰어난 리더쉽으로 한국형 제3자 물류기업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삼영물류를 꾸준한 경영혁신을 통해 성장시켜왔으며 특히 물류표준화 구축 및 시스템 정착 등 과학적 물류관리로 물류업계의 생산성을 향상시킨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들의 단위당 물류비절감을 위한 공동보관, 공동수송 등의 공동물류서비스를 제공해 물류비 절감에 기여하는 등 물류 생산성 향상에 대한 많은 기여를 했다.

이상근 대표는 “향후에도 물류생산성 향상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고객과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추구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물류설비인증업무 민간에 이양

기술표준원, 건자재시험연구원 인증기관 지정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기업물류표준 활성화와 물류설비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난 9월 30일자로 민간전문기관인 (재)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을 물류설비인증기관으로 지정, 인증업무를 이양했다고 2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물류설비표준의 이행확산과 표준설비 활용으로 물류비 절감을 통한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정 임의인증제도인 물류설비인증제도(IS)를 도입('04.7), 수송·배송 등 4개 분야 34개 품목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인증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류설비의 품질과 규격 등을 검사하는 전담 성능검사기관(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지정·운용 하고 있다.

이번 물류설비인증제도의 민간이양을 통하여 물류표준화 이행이 확산되어 포장·운송·하역·보관·정보 등 물류 공급사슬 전반에 걸친 물류표준화를 유도하고, 기업간 화물유통에 있어 일관성 및 호환성이 가능한 유닛로드시스템 구축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물류비 절감 등 산업경쟁력을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에서는 향후 물류설비업계의 규모, 인증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여 민간이양의 기대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인증기관의 복수지정,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을 KOLAS 인정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ISO, 플라스틱 회수·재활용 신 표준안 제정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재료 회수 취지

국제 표준화 기구(ISO: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가 플라스틱 회수와 재활용에 대한 새로운 ISO 국제 규격을 제정할 방침이다.

환경부 산하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TEN)에 따르면 ISO는 최근 'ISO 15270:2008 플라스틱-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와 재활용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표준안은 전체 플라스틱 산업계에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재사용 및 재활용에서 국제 기반시설과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재료 회수와 플라스틱 제조품 시장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개발됐다.

회수되는 플라스틱 재료는 다양한 원료로부터 획득되며 주요 대상 시장으로 포장재, 건축 및 건설 재료, 전기전자제품, 자동차·수송, 가정·소비자 제품 등이 있다.

ISO 15270:2008은 사전·사후 소비 단계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 방식의 여러가지 선택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 후(post-use) 관리 과정 및 방법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ISO는 기대하고 있다.

◆ RFID/USN 표준화 통합협의회 출범

국내 RFID/USN 표준화 탄력 받을 전망

미래 유통물류산업의 혁신과 유비쿼터스 사회 구현의 핵심적 인프라로 부각되고 있는 RFID/USN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표준화 통합협의체가 출범됐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정부가 중점 육성하고 있는 RFID/USN 산업의 표준화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RFID/USN표준화통합협의회”의 공식 출범회의를 9월 3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식경제부가 공표한 “RFID/USN 산업발전 비전 및 전략”에 따라, 그동안 유관 기관 및 포럼별 분산 추진해 온 표준화 기능을 통합 연계하기 위하여 정부, 유관기관, 학계, 업계 등 25인의 표준전문가로 구성하였다.

지금까지 정부가 국내외 RFID/USN 표준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해 왔던 모바일RFID포럼, RFID확산포럼, USN포럼, RFID국제표준화대응위원회 등이 모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정부의 산업발전 전략에 맞춰 국내 RFID/USN 표준화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이번 협의회 발족을 계기로 RFID/USN 기술개발, 확산사업 및 인프라 구축 등 관련 산업 정책과 표준화 연계를 강화하여, R&D결과에 대한 우리나라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에 주력하고 응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장 표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대한상의, '글로벌물류포럼' 출범

대한상공회의소 물류업계 등과 함께 글로벌 물류포럼 발족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은 지난 8월 29일 이상근 삼영물류 사장을 비롯한 물류업계 및 국민경제자문회의, 인천공항공사 등 물류유관기관, 박창호 재능대학 교수 등 학계인사들을 주축으로 50여 명이 참가한 '글로벌물류포럼'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제1기 포럼 회장에는 이상근 삼영물류(주) 대표이사가 선출됐으며, 총무에는 이호준 조양국제물류 이사가 뽑혔다.

대한상의는 '선진물류업체 벤치마킹', '글로벌 최신물류동향 파악' 등을 통해 물류업계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물류시스템 선진화를 꾀한다는 목표다.

특히 학계, 물류유관기관 및 업계 전문가 풀을 구축해 물류시스템에 대한 이론 강의와 물류센터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중소 물류 회원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글로벌 물류포럼 출범이 정부와 물류업계를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물류업계의 대표적인 커뮤니티로 자리잡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